

<2026년 경기창작캠퍼스 신규 입주단체 모집> 최종 심의평

올해 심사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푸드 크리에이터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에서는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창작캠퍼스’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어떠한 뚜렷한 창작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주단체 간 협업과 확장 가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도가 지닌 이야기와 가치, 역사와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각 단체가 이를 어떻게 경기창작캠퍼스 안에서 풀어내고 활동으로 이어갈지 기대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의 경우 단체별 사업 목적과 활동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 단순한 비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다른 입주단체와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로컬 푸드 크리에이터 분야는 본격적인 상품 개발과 홍보를 앞두고 있는 단계로, 향후 다양한 가능성과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 또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입주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3월 4일

심사위원

민운기, 오형근, 유다원